

반다이산의 성장기

반다이산은 당초 용암층과 화산재층으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모양의 성층화산이었습니다. 하지만 2500년 전의 화산 활동으로 산 정상이 붕괴해 폭 1.2km, 깊이 350m의 누마노타이라 칼데라가 형성되었습니다. 이 산체 붕괴로 반다이산은 해발 1,430~1,816m의 오반다이, 구시가미네, 아카하니야마, 고반다이라고 하는 4개의 봉우리로 분리되었습니다.

더불어 1888년에 일어난 수증기 폭발은 당시 봉우리 중 하나인 고반다이 「작은 반다이」를 산체 붕괴시켰습니다. 폭발로 반다이산의 봉우리는 3개가 되었으며, 격렬적인 암설 사태(고속으로 일어나는 산체의 대규모 붕괴 현상)로 지역 일대에 암석 파편이 흘러 들어갔습니다. 현재는 비활화산이 된 반다이산을 찾는 사람들은 고반다이의 붕괴 흔적이나 암설 사태가 계곡을 막아 형성한 약 300개의 호소 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.

향후 분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반다이산의 화산 활동은 주의 깊게 감시되고 있습니다.